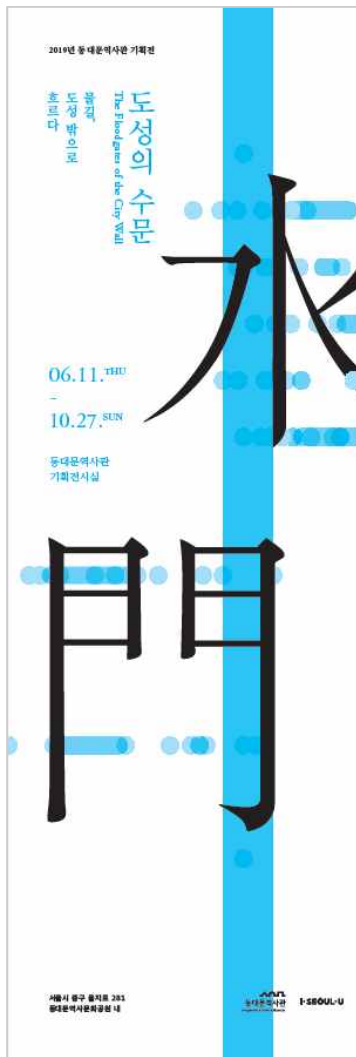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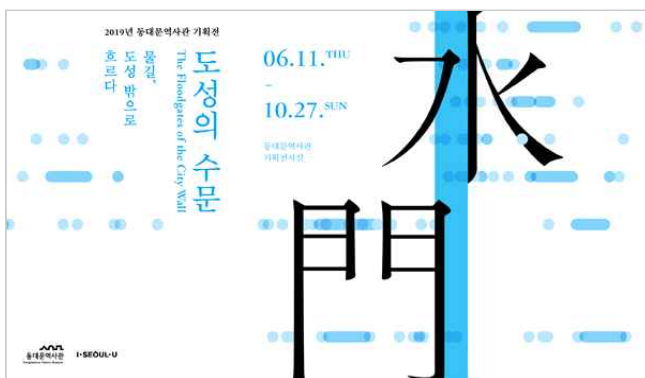
【홍보물(리플릿, 배너 등) 이미지】



X배너



포스터



한양도성 홈페이지(604*3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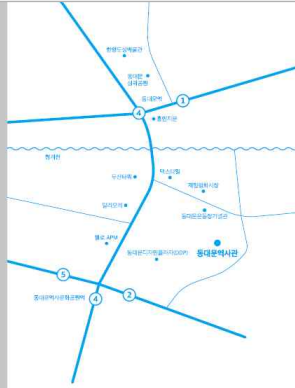


서울역사박물관 홈페이지(370*326)

About the Exhibition

The eastern section of the Hanyangdongsong, Seoul City Wall, between Heunginjimun (Gate) and Gwanghuijum (Gate), was the site of two floodgates: the five-arch and two-arch floodgates. In Joseon Dynasty, the waterways of Hanyang merged and exited the city through either of these floodgates, which also served as defenses against outside enemies. But by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1910-45), the floodgates were no longer functional and soon were torn down along with parts of the city wall. They remained buried underground for many years until excavation surveys verified their original structure in 2003 and 2008, respectively.

This exhibition will introduce the functions and changes of these floodgates, originally built as part of the Hanyangdongsong at its lowest points. It will be an opportunity to look back at the history and unique sense of place that the former Dongdaemun Stadium area held in the past.



오시는 길
 서울특별시 중구 동대문로281(동대문로가 2-1) 동대문역사문화공원
www.seoul.go.kr

전시 장소
 동대문역사문화공원
 201호층 (11월 11일 - 2018년 10월 27일)

관람 시간
 오전 10시 - 오후 7시
 매주 월요일 휴무 (1월 1일 설날 휴무 제외)

관람료
 무료

문의처
 02-2163-0200

Exhibition Hall
 Dongdaemun History Museum Exhibition Hall

Exhibition Period
 June 11th, 2018 (THU) - October 27th, 2018 (SUN)

Opening Hour
 10am - 7pm

Closed
 Every Monday, January 1, Lunar New Year's Day, Korean Thanksgiving Day

Admission
 Free

Tel
 02-2163-0200

2019년 동대문역사문화공원 기획전

도성의 수문
 The Floodgates of the City Wall

06.11, THU
 -
 10.27, SU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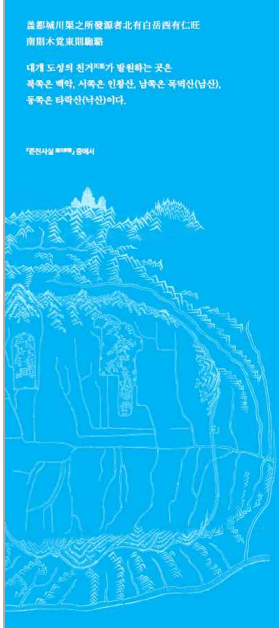
동대문역사문화공원 기획전

I-SEOUL-U

전시를 열며

한양도성의 동쪽, 흥인지문과 광화문 사이에는 사람이 아닌 하천의 흐름을 위한 두 개의 문이 있었습니다. 오간수문(五間水門)과 이간수문(二間水門)은 조선시대 도성 안을 흐르던 물길이 도성 밖으로 빠져나가는 하천의 배수구이자 외부에서 침입하는 적을 막기 위한 방어 시설이었습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 도성 하천수의 관리가 부실해짐에 따라 수문은 제 기능을 잃어 버렸고, 실벽과 함께 훼손되어 자장에서 사라졌습니다. 이후 2003년과 2008년에 각각 발굴되어 그 원형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전시는 한양도성의 가장 낮은 곳에 건설된 성곽 시설물로서 수문의 역할과 물길과의 관계, 그리고 그것의 변화상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두 수문이 위치했던 옛 동대문운동장 지역의 역사와 장소성을 되돌아보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 기대합니다.



01 수문을 찾는다



조선의 수도 한양은 북쪽의 백악산, 동쪽으로 백운산과 남산, 그리고 남쪽의 북악산(남산)이 둘러싸인 분지에 자리잡았다. 북쪽과 남쪽에 비해 서쪽과 동쪽의 지세가 상대적으로 낮아서 각 산에서 흘러내린 물길은 길쭉한 중앙부를 통과하며 가로지르며 도성 밖으로 빠져나갔다. 태조 5년(1396) 전국 8도 12도를 통틀어 같은 한양도성촌 이을 내사(內使)의 농민을 동원하여 건설되었다. 그 결과 총 길이 50,500리에 이르는 성벽과 도성 내외곽의 순환을 위한 여덟 개의 수문, 그리고 도성 안 하천의 배수를 위한 두 개의 수문이 완성되었다.

Hanyang, the former name of Seoul, was the capital city of Joseon (1392-1910). It was located in a flat area surrounded by mountains - Baegak to the north, Inwangsan and Naksan to the west and east, and Mongyuksokan (or Namsan) to the south. The lands of the west and east are lower than those of the north and south, thus streams flowing down from the mountains merged and continued their flow from west to east, eventually exiting the city. In 1396, people from all provinces across the country were mobilized to build the Hanyangdongsong along the ridges of the four mountains. At its completion, the city wall spanned about 18.6km, with eight gates and two floodgates.

02 도성의 수문



한양도성의 수문은 성곽의 시설물로서 도성 안의 저수지를 위해 일 반으로 하천수를 통과시키는 배수구의 역할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침입하는 적을 막기 위한 방어 기능도 있었다. 물길의 흐름에 따라 지세가 가장 낮은 도성의 동쪽에 두 개의 수문이 축조되었는데, 각 수문은 총 5개와 2개의 수문구로 구성되어, 배수 수문에는 일회용 수문(一會水門)에 비해 내외곽을 통제하였다. 또한 수문 주변에는 돌출부와 지장(地障) 및 다수의 방어시설이 설치되어 외적의 침입이 용이한 지형적 약점을 보완하고 방어능을 강화하였다.

The floodgates, as a part of the Hanyangdongsong, not only served as the drainage channel for the stream water management effect, but also functioned as a defense facility against outside enemies. Two floodgates were constructed in the eastern section of the city wall, through which the streams flowed at the lowest points. Each floodgate was composed of a series of connected arches and gates, and each arch gate had iron gate installed to ensure it was not used as a passageway for people. Also, a number of defense facilities such as a semicircular bastion and protruding bastions were constructed around the floodgates to compensate for the topographical weakness and its resistance defense capabil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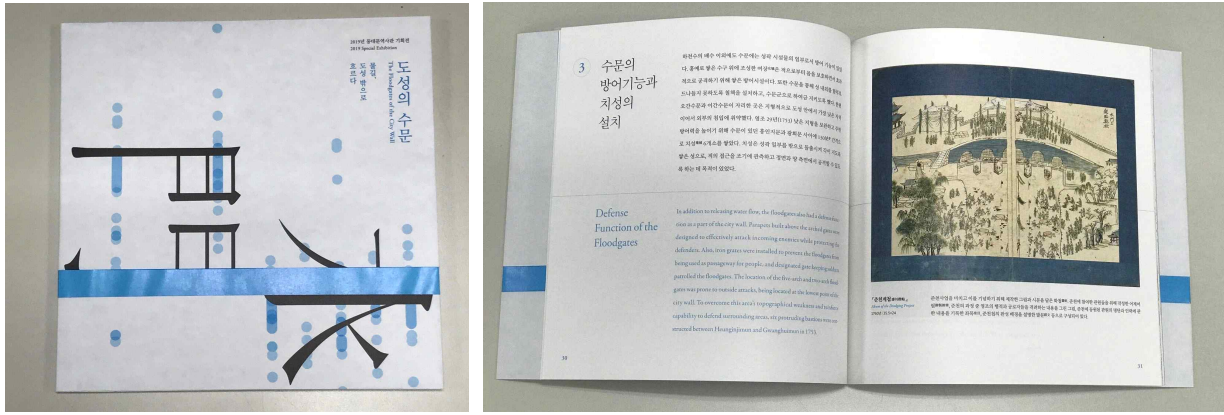
03 근대기 수문의 변화



일제강점기 한양도성의 훼손과 함께 도성의 수문도 큰 변화를 겪게 되었다. 외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 도성 안의 하천수를 배수하기 위해 오간수문은 철거되었고, 강성운동장 권역으로 이간수문이 재건되었다. 도성 안의 물길은 도시 확장과 하수처리 시설을 목적으로 북계(北界)에서 배설 이후인 1977년 도성 물길을 지장에서 사라졌다. 2003년 일제시대 복원사업이 시작되며 배수 방벽에 묻혀 있던 물길이 드러나고 오간수문이 발굴되었다. 2009년에는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조성 중 하천 발굴조사를 통해 이간수문이 발굴 복원되었다.

As the Hanyangdongsong began to be torn down in 1907, the floodgates also underwent significant changes. To improve stream flow and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the five-arch floodgate was demolished. The two-arch floodgate was also removed during the construction of Gyeongseong Stadium. Meanwhile, the waterways inside the city wall were covered to improve urban sanitation and wastewater treatment. When the Cheonggyecheon Restoration Project began in 2003, some of the hidden underground waterways were exposed and the five-arch floodgate was excavated. In 2009, the two-arch floodgate was found and restored during the excavation survey prior to the construction of Dongdaemun History and Culture Park.

전시 리플릿(앞·뒷면)



도록(표지 및 내지)